書 評

Atkins, Pope. *Latin America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3rd edition. Boulder: Westview. 1995.

Lowenthal, Abraham and Gregory Treverton, eds. *Latin America in a New World: An Inter-American Dialogue Book.* Boulder: Westview. 1994.

Muñoz, Heraldo and Joseph Tulchin, eds. *Latin American Nations in World Politics.* 2nd edition. Boulder: Westview. 1996.

Smith, Gaddis. *The Last Years of the Monroe Doctrine, 1945-1993.* N.Y.: Hill and Wang. 1994.

Van Klaveren, Alberto. "Entendiendo las políticas exteriores latinoamericanas: Modelo para armar." *Estudios Internacionales.* 25(98). 1992.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정치학: 영속적 후진성으로부터의 탈출

곽재성

선문대학교 중남미학과 교수

Ⅰ. 라틴아메리카 국제정치 연구의 방향성

정치적 불안정, 국내적 통합의 부재, 외국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 미국의 지역 패권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20세기의 라틴아메리카는 국제 정치의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언제나 주변부를 맴돌아 왔다. 이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정치 연구는 기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양적, 질적 후진성을 면치 못해 왔다.[1] 미약하나마 맥을 유지해 온 라틴아메리카 국제정치학은 국가 자율권의 확립과 경제발전이라는 지상과제의 달성을 위해 주로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해석하는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분석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국제관계 또는 대외정책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고, 있다고 해도 사실의 나열에 치우친 평이한 해설 정도였다.[2] 라울 프레비쉬(Raul Prebisch)에 의해 주도된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

---

1) 국제정치학 자체가 갖는 학문적 불안정성과 발전경제학을 위시한 생존지향적 학문이 사회과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온 라틴아메리카적 학계의 풍토도 이런 후진성에 일조하는 요인이다.

2) 이 현상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Simpson과 Wrobel(1987)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진정한 국제관계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Tomassini(1991)는 두가지 우려를 표명했는데 하나는 양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은 대외정책분야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CEPAL)가 미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학문적 종속을 지적한 이후 거의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방법론적 성숙은 요원한 현실이며 변해 가는 학문적 조류의 수용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또는 신고전주의의 바탕에서 다양한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활발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학문적 후진성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반 클라베렌(Van Klaveren, 1992)의 시각은 다르다.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국제적 다자간 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이 지역의 학자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국경을 초월한 국제 문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RIAL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América Latina)이 결성되었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3]; 1990년대에 들어선 이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아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정치 연구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고 그는 자평한다 (p. 170).

그의 논문은 본 학문의 전개 과정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그것과는 축을 달리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초점은 대외정책에 대한 선진국식의 정치과학적 분석이 아닌 국제관계를 주로 다룬 사실의 기술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지리적, 언어적 상이성,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라는 서구적 시각 등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국제정치 연구에 대한 일반적 평가인 후진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클라베렌(Van Klaveren)을 위시한 RIAL의 구성원들은 객관적 후진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정치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로 결정요인의 분석으로 귀결되었고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묶은 책이 바로 무뇨스(Muñoz)와 툴친(Tulchin)이 편집한 *Latin American Nations in World Politics* 이다. 이 책에서 반 클라베렌(Van Klaveren, 1996)이 제시한 결정요인으로는 정치체제의 성격, 경제발전전략, 역사적 문화적 배경, 정책결정과정 등을 위시한 대내적 요인과 국제정치 시스템, 힘의 정치와 지정학적 요인 등을 다루는 대외적 요인 등이 일반적 고려 대상이다. 각국의 사례를 진단한 나머지 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방향성을 근저에 깔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분석이 미국식의 과학적/계량적 이론은 결코 아닌 서술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힐(Hill, 1979)이 일찍이 지적한 세 모형 중 정치과학의 이론적 개념(political science concept)과 라틴아메리카적인 서술적 방법론(descriptive method)이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 모형

3) 대표적 기관들로는 칠레대학교의 Instituto de Estudios Internacionales와 멕시코의 Colegio de México를 들 수 있다.

을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II. 1990년대의 국내/외 환경 변화

편집을 담당한 무뇨스(Muñoz)와 툴친(Tulchin)이 동시에 의도한 바는 1990년대의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제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어가고 있고 경제발전전략은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냉전과 양극체제가 붕괴되었고 국제화된 세계경제체제가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툴친(Tulchin) 자신의 논문인 Continuity and Change in Argentine Foreign Policy는 이 목표에 가장 부합하며 또한 여러 논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글이다. 민주화 시대의 두 정권인 알폰신(Alfonsín)과 메넴(Menem)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이 갖는 의미와 현재적 역할, 그리고 외교파트너이자 또한 중요 변수이기도 한 미국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의 결정적 기여는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의 역사적 유물인 동시에 결정적 한계인 파격주의(exceptionalism)[4]가 민주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대외정책이 합리성을 띄고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한편, 멕시코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차바트(Chabat)의 논문은 경제 분야의 변수에 초점을 두고 씌여졌다. 즉, 1990년대에 멕시코가 경험한 대외정책상의 변화는 국제화(globalization)라는 외부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새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종속(dependency)의 의미는 사라지고 상호의존(Interdependence)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용어의 관념적 차이에 관해선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지만 현실속의 차이점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검증된 바 없다.

칠레를 다룬 윌엘미(Wilhelmy)의 글과 소련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다룬 바라스(Varas)의 글은 우선 초판의 글과 별반 다른 논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학자의 명성에 맞지않는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전자는 민주화 이후 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화된 칠레의 대외정책 엘리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약했고 후자는 구 소련이 해체된 포스트 고르바초프 시대의 양자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1990년대의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집필되었다.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은 반 클라베렌(Van Klaveren, 1996)의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논문들이 집필되었지만, 결정요인의 분석에 치중한 탓에 1990년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연구 대상들 - 마약, 이민, 환경 - 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집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책의 많은 논문들은 90년대적 상황과 이에 따른 중남미 대외정책의 변화(evolution)를 파헤치는데 정치과학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4) 대표적인 예는 메넴 행정부가 걸프전 당시 주변국과 아무 상의도 없이 파병한 사건이다.

III. 1990년대적 현상

우선 이번 출판이 제3판인 아킨스(Atkins)의 저술은 라틴아메리카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거의 유일한 개설서라는 점에서 재판을 거듭하는 동안 많은 독자를 확보한 책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냉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으로 새로 집필되었으며 마약, 환경, 이민을 위시한 새로운 주제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반면, 시스템 이론에 기반을 둔 탓에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대외정책, 각국의 차별성,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내적 변수들 등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다분히 미국적 시각에서 기술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저자가 목표로 한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한 국제환경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정치과학적 분석틀 하의 연구(topically complete and analytically integrated political science survey of Latin America's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시도라는 점에서 위의 결점에 대한 보완은 이 책의 틀을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로웨탈(Lowelthal)과 트레버톤(Treverton)이 공동 편집한 *Latin America in a New World*는 냉전 이후의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새로이 등장한 외교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리고 새 국제질서하의 대외 정책적 변화라는 세가지 주제의 글들을 엮은 것이다. 차별성 있는 주제하에 각각의 글들이 접근하긴 하지만 책 전반에 흐르는 전반적인 논조는 라틴아메리카가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느껴야 하는 90년대적인 절망감이다. 그것은 바로 구 소련의 (경제적) 보호막을 쿠바가 상실했듯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더 이상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전 만큼 바랄 수 없게 된 위기의식이다. 편집인들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상과 라틴아메리카의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하는 미국의 중요성 사이의 엄청난 괴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20년 전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은 냉전이후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Lowenthal and Treverton, p.2).

예외적으로 낙관론을 펼친 얼마(Ullmah)는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었고 미국의 직·간접적 군사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과 그 동안의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미국이 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민, 마약, 환경문제 등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비전통적인 분야의 이슈들이 1990년대에 부각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행동보다는 상호 협의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까스따네나(Castañena)의 논문은 정반대의 비관론을 피력하였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환경보존, 마약근절 등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아 미국의 간섭과 일방적 외교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과거 냉전시대에 제한적이나마 누렸던 국제적 행보의 자유를 더욱 더 제한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

는데 이는 냉전시대 강대국 사이의 역학구도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책 선택의 폭이 더 이상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을 향한 무한 경쟁에서 라틴아메리카가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듯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두 논문은 1990년대적 상황과 라틴아메리카가 처한 어려움에 관해선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얼마(Ullmah) 역시 새로운 이슈들의 해결에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약자이며 방어자라는데 이의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냉전 종식이 낳은 다른 결과인 동구 유럽의 세계체제 편입현상과 정치적 통합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형성도 라틴아메리카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힌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비롯하여 9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자구적인 성격을 이런 국제적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NAFTA의 체결과 WTO 체제가 몰고 온 국제화(globalization)의 바람은 좋든 싫든 미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기대 심리를 더욱 부풀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추가의 개념으로써의)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 투자 파트너를 찾게 만들었다.

Ⅳ. 새로운 파트너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에게 있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된 나라는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스톨링스와 호리사카(Stallings and Horisaka)와 쑤(Xu)의 글은 일본과 중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관계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일본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의 교역국이며 막대한 투자와 채권의 소유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지탱에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일본이 이 지역과 전반적인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 대 라틴아메리카 외교노선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의 경험에 대한 기초적 관심"을 가지고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들과 선택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을 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 쑤의 표현을 빌리자면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쿠바 정도가 향후 유력한 상품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이다 (Xu, p.162).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투자와 무역에 있어 양자의 이해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충돌하는 면이 여전히 더 많다는 데 있다.[5]

한편 앞서 소개한 반 클라베렌(Van Klaveren, 1992)에 의하면 경제적 실익이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 된 90년대적 상황은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이 가까워진 배경이라고 한다.

5) 극단적인 예는 칠레의 아옌데 정부 집권기의 양자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옌데 정부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전향적 관계증진을 기대했으나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동을 비롯한 각종 광물은 이미 중국이 자급자족의 차원을 넘어 국제시장에서 칠레의 산물과 경쟁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 이었다. 따라서 아옌데가 중국과의 수교로써 얻은 실익은 거의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 스페인을 필두로 하여 이태리, 영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파트너로 소개된 유럽과 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비관적인 요인은 이들이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미국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라틴아메리카의 국내적 정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 유럽과 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는 강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관계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는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적 안정을 공고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 증진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변수들이 얼마든지 선행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대외정책에 있어 역사적 연대와 지리적 근접성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요인이 됨을 반증한다. 결국 우리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미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은 어떠한가? 먼로 독트린에 기원을 둔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의 충실한 이행인가?

V. 미국 대외정책상의 라틴아메리카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기원은 무엇이며 진정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기여 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라틴아메리카 국제정치학에 관심이 있는 거의 모든 미국 학자들이 아닌가 한다) 그 동안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했다. 스미스(Smith)의 저술은 이런 맥락에서 씌여졌으며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먼로주의를 축으로 하여 미국의 정책에 관한 근본적 진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는 (미주 대륙에서 외세의 간섭을 몰아내고) 먼로 독트린이 승리하였느냐 아니면 (냉전의 논리에 이용만 되다) 내 팽개쳐졌느냐의 두 논쟁사이에서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역사적, 사안별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분별성 자체를 부인하며 먼로 독트린의 우산 아래 자행된 수없이 많은 미국의 반공 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고발한다. 정책 결정은 라틴아메리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위직 인사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고 강대국간의 냉전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왔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직접 방문하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긴 했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이 바로 공산주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우파 독재의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수립된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수립자였음을 그는 명확히 밝히고 있다 (pp. 67-72).

이는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의 원칙에 충실히 입각하여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이 수립되고 적용되어 왔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해석이며 또한 1980년대에도 먼로주의는 여전히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근본을 이룬다는 까를로스

푸엔떼스(Carlos Fuentes)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도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역사학계와 대중의 찬사가 무색하리 만큼, 사료중심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학자의 비 체계적인 글은 미국의 뒷받침으로 이룩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거시경제적 번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들에 의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Falcoff, 1997).

Ⅵ.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국제관계연구가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양적 팽창을 이룩해왔다는 점은 인정되나 아직도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진성의 탈피를 위한 작업의 일환인 대외정책 결정요인분석이라는 한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무뇨스(Muñoz)와 툴친(Tulchin)의 책이 본래의 목표인 종합적 체계적 연구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더라면 아킨스(Atkins)의 텍스트와 함께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띄면서 균형있게 공존하여 이 분야의 자리매김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환경변화는 역설적인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1990년대적 현상이 결정요인 분석가들로부터 결정요인의 라틴아메리카적 다양성(Dynamism)을 일시에 빼앗았다는 것이다. 국내적 요인은 탈 이데올로기, 민주화, 신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획일화 되어 버렸고 오랜 기간동안 국경분쟁을 야기시키며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의 효과로 기대되는 점은 대외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국간의 차별성 부각을 위한 작업은 매우 어려워진 반면 변수가 단순화됨으로써 일반화(generalization)를 목표로 한 비교연구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들의 국제적 행보에 관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정치학이 영속적 후진성으로부터 탈출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Davis, Harold E., Fiman, John and Peck, Ta. 1977. *Latin American Diplomatic History: An Introduction*. Baton Rouge and London.

Falcoff, Mark. 1997. "The Last Years of the Monroe Doctrine." (book reviews) *ORBIS*. Winter. 41(1).

Ferris, Elizabeth. 1984. "Toward a theory for the comparartive analysis of Latin American foreign policy." in Lincoln. Jennie and Ferris, Elizabeth (eds.). *The Dynamics of Latin American Foreign Policies*. Westview. Boulder.

Hill, Chrtistopher. 1979. "A Theoretical Introduction." in Wallace, William and Paterson, William. *Foreign Policy Making in Western Europe*. Saxon House. Farnborough. pp.7-30.

Kaufman, Edy. 1977. "Latin America." in Christopher Clapham (ed.). *Foreign Policy Making in Developing States*. Saxon House. Surrey.

Kwak, Jae-Sung. 1996. *The Determinants of Chilean Foreign Policy: 1970-90*.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Liverpool.

McGowan, Patrick and Shapiro, Howard. 1973.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Sage. Beverly Hills.

Muñoz, Heraldo. 1989. "The dominant themes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s foreign policy." *World Affairs*. 150(2). p.130.

Simpson, Mark and Wrobel, Paulo. 1987.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Hispanic America."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6(2).

Tomassini, Luciano. 1991. *La política internacional en un mundo postmoderno*. GEL. Buenos Aires.

Walts,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Mass.

곽재성.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선문대학교 중남미학과 교수. Tel: 0418-530-2448, E-mail: kwakwak@omega.sunmoon.ac.kr